

도심제조업 노동자 건강정책 우선순위파악(주얼리 노동자)

연구기간 2023년 4월 ~ 2023년 11월

핵심단어 주얼리 노동자, 작업환경 조사, 근로환경 평가, 건강정책

Highlights

도심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얼리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보건관리가 미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도심 제조업 노동자들은 다양한 신체 증상에서 근로환경조사결과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따라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1

연구배경

- 도심제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숙련된 기술공이 노하우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장이 영세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2018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5인 미만이 봉제 60.85%, 인쇄 81.75%, 주얼리 72.84%로 도심제조업은 소규모 사업체로 확인됨.
- 이처럼 영세사업장으로 이루어진 도심제조업은 물리적 공간 부족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있었으며, 공정 중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질병 및 손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심 내 제조업 산업의 취약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작업환경 개선사업, 도시형소공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함.
- 이에 도심 내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 주얼리 제조 사업장 현황 및 관련 법·제도 문헌조사

- 2021년 서울의 주얼리 제조 5인 미만 사업장은 1,231개소로 전체의 84.20%이고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경우 94.05%임.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876명(39.40%)이 종사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는 2,806명(58.93%)이 종사하고 있음.
- 주얼리 산업에는 다수의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또한, 4인 미만 사업장에 등록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적용도 어려운 실정임.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한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고 보호, 가산 수당 및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연차 및 생리 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 이로 인해 주얼리 산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조건에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주얼리 노동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노동 이력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금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노동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주얼리 제조 작업현장 방문조사

- 소규모 사업장 5개소 방문조사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나 경고표지의 부착, 안전관리자의 부재, 그리고 기본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 이외의 보건학적 관리 부족이 발견됨.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설비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보호구를 갖춘 사업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사업장 5개소 작업환경측정결과 대부분 물질(과산화수소 등)에서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10% 미만으로 나타남.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보건관리가 미비하고 작업물량 등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타 업종에 비해 조도와 휘도의 상태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귀금속 제조업 특성상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가공 대상물질이 귀금속으로 반짝임이 심하고, 빛 반사율이 높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

○ 주얼리 제조 근로환경평가

- 설문조사 결과, 근로환경조사의 금속제조업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주요 지표에서의 차이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서 나타났음. 건강검진에 관한 응답에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비

율이 66.0%였고,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를 받는 비율은 61.1%였으며 검진을 받지 않은 주요 이유로 '아프지 않아서'와 '검진 결과가 두려워서'를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1%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심 제조업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른 관련 서비스 이용률 특히 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이용률에 대한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이 파악됨.

- 정신 건강 면에서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40대 우울감 경험률보다 약 20% 높은 수치였고, 수면장애 관련해서도 취약한 점이 나타남. 또한 아픈 상태에서 근무한 경험, 건강 및 안전 정보 제공 부족 등에서 근로환경조사 금속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조사됨.
- 수면장애 관련 문항들을 대조군과 연령표준화 유병률을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유병률이 약 2~3배 높게 나타났음. 이 결과를 통해 보여지듯 주얼리 제조업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상태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주얼리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서 위험 노출은 대체로 금속제조업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도심 제조업 노동자들은 다양한 신체 증상에서 근로환경조사결과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주얼리 제조 종사자의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방안 우선순위 정책(안)

- 산업보건서비스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장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요소임. 그러나 도심의 소규모 제조업 노동자들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다양한 건강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들의 취약성은 비표준 고용형태, 높은 이직률, 낮은 안전 의식, 그리고 자금 문제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조직 운영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시범 사업을 시행하며 오픈형 보건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중심의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는 전략을 필요로 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시사점

- 주얼리 제조업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었으며 특히 우울, 수면, 불안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대조군과 비교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음. 이에 금속제조업의 타 직군과 유병률 비교를 할 수 있었고, 영향 요인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3

연구활용방안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도심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얼리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근로 환경을 확인하고 현 상태를 파악하고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주얼리 노동자를 위한 건강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및 사업을 선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연락처

-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심주호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 최영화
- 연락처: 052-703-0876
- e-mail: luvcyh@kosha.or.kr